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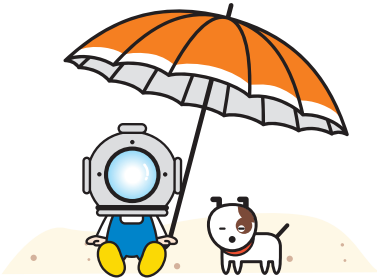
학생용 워크북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II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저

# 고성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고성



한국해양재단  
KOREA MARITIME FOUNDATION

〈학생용 워크북〉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II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저

# 고성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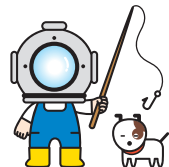
# 안내의 글

경상남도 고성군은 경남의 중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14개 읍·면 중 1읍 7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여 양식어업의 적합지로서 특히,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해역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굴 및 피조개 양식이 유명합니다.

또한 고성읍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의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고성평야와 당항만, 고성만의 해안지대의 석지리 지석묘, 고성동 외동패총, 송학동 고분군 등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적,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옥천사, 임진왜란 당시 당항포해전의 현장 등 우리의 화려한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추출한 해양문화 탐방지로는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신이 깃든 당항포해전 전적지,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흔적을 찾아 떠나는 공룡 박물관, 학림리 지석묘, 동화어촌체험마을 등입니다.

이곳 고성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여행을 떠나보아요.



## 1 고성 바다에 가기 전에

|              |    |
|--------------|----|
| 고성의 바다와 자연환경 | 04 |
| 고성의 생활과 해양산업 | 05 |
| 고성의 문화유산     | 06 |

## 2 고성의 해양문화 탐방

|                                |    |
|--------------------------------|----|
| [탐방1] 충무공의 얼과 정신이 깃든 당항포 전적지   | 07 |
| [탐방2] 바다가 만들어낸 보석이 있는 수석전시관    | 11 |
| [탐방3] 소가야의 타임캡슐, 송학동 고분군       | 14 |
| [탐방4] 청동기의 흔적, 학림리 지석묘         | 18 |
| [탐방5] 바다에서 놀아보자, 동화어촌체험마을      | 23 |
| [탐방6] 기암절벽과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상죽암     | 26 |
| [탐방7] 중생대 공룡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성공룡박물관 | 29 |

## 3 입을거리

|                |    |
|----------------|----|
| 당항포대첩축제        | 32 |
| 공룡나라축제         | 33 |
| 아이쿠 속았네! '속시개' | 34 |

## 1. 고성 바다에 가기 전에

### 가. 고성의 바다와 자연환경

고성은 경남의 중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14개 읍·면 중 1읍 7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여 양식어업의 적합지로, 특히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해역의 자란만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청정해역입니다. 기후적으로는 지리상 한반도의 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은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의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기온은 15.4°C이며, 평균 강우량은 1,536.9mm로 6~8월에 연중 강우량의 1/2이 집중적으로 내리며 12월에 최저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의 지리적 특성은 서북이 높고 동남이 기운 편이며 큰 강이나 높은 산은 없으나 사방에 산이 많고 하천은 고성군의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송학동에서 본 고성 전경 모습



## 나. 고성 생활과 해양산업

고성평야와 당항만·고성만의 해안지대에는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방이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한 곳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돌로 쌓은 고인돌, 석관묘 등으로 보아 2천년 이전의 원삼국시대 변한 12국 중의 하나인 고자미동국의 본토(本土)였으며, 서기 42년부터 461년간은 소가야의 도읍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고성군으로 불리다가 고려 때 고성현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재는 고성군, 1읍 14개면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은 옛 소가야의 도읍지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산과 바다와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에 풍부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섬과 만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청정해역의 깨끗한 수질과 일찍 보급된 양식 기술로 굴, 피조개, 넙치, 새우 등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굴 생산량이 많은데 바다 위에 떠있는 흰점들은 대부분 굴 양식장의 부표입니다. 최근에는 다슬기, 철갑상어 등 다양한 종류의 양식어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어업의 발달로 돔, 도다리, 갯장어, 멸치 등이 많이 잡힙니다.

## 다. 고성 의 문화유산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성은 당항포해전이 이뤄졌던 당항포 전적지, 중생대 공룡발자국이 남아있는 상족암,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요트스쿨, 갯벌체험이 가능한 동화어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장입니다.



옥천사 청동북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지



운흥사 관음보살도



고성농요



고성오광대

## 2. 고성의 해양문화 탐방

1

### 충무공의 열과 정신이 깃든 당항포 전적지

무엇을  
배울까요?

- 당항포 해전의 의의를 알아봅시다.
- 당항포 전적지를 살펴보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길러 봅시다.

|                      |   |
|----------------------|---|
| <b>자원탐방<br/>길라잡이</b> | 고성군 회화면에 위치한 당항포 전적지에 가보면 전승기념탑, 당항포 해전관, 거북선 체험관, 충무공디오라마관, 송충사, 현충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국 전적지를 둘러봄으로써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
| <b>위치</b>            |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당항포관광지(전승기념관)  |
| <b>관람시간</b>          | 연중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 <b>입장안내</b>          | 어린이(4,000원), 청소년(5,000원)  |
| <b>연락처</b>           | 055) 670-4501   |
| <b>교통편</b>           | 고성시외버스터미널 :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당항포관광지까지 도보 또는 택시 이용   |
| <b>참고사이트</b>         | 당항포 관광지 ( <a href="http://dhp.goseong.go.kr">http://dhp.goseong.go.kr</a> )   |
| <b>탐방시유의사항</b>       | 관람예절을 지키고 뛰어다니지 않기  |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Tip!

- 당항포해전관, 충무공디오라마관 등을 같이 체험하여 봅시다.





충무공디오라마관



거북선체험관

## ■ 당항포 전적지

당항포 전적지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 대첩지로서 1592년 7월과 1594년 4월 2차례에 걸쳐 왜선 57척을 격침시킨 곳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기간 중 두 차례나 왜군을 전멸시킨 호국의 성지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으며, 매년 4월 23일 당항포 대첩 제전행사가 병행되는 송충사와 1986년에 건립한 높이 20m의 전승기념탑, 고성지역 의병 44인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현충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항포 해전관, 거북선 체험관, 자연사관, 자연예술원, 1억 년 전 물결자국,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을 함께 탐방할 수 있습니다.



당항포 해전관



현충탑



전승기념탑



송충사



## ■ 당항포 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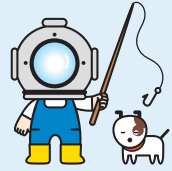
1차 당항포 해전(1592.7.13~14)은 당포(통영시 산양면 삼덕리)에서 쫓긴 왜선들이 거제를 지나 당항포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함선 23척과 전라우수사 이억기의 함선 25척, 경상우수사 원균의 함선 3척 등 51척의 연합함대가 벌인 해전입니다.

연합함대가 당항포로 진격해 들어가니 속시개(당항만) 서쪽 기슭에 검은철을 한 왜선 26척(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함대는 당항만 어귀에 4척을 숨겨두고 47척이 거북선을 앞세워 공격해 들어가 왜선 전부를 불태우고 왜적들이 육지로 올라가 민간인들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왜선 1척은 일부러 남겨두어 그들의 퇴로를 터 주었습니다. 다음날 남겨두었던 왜선 1척이 왜적 1백여 명을 싣고 만 안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수군이 일제히 돌격하여 적선을 불태우고 왜적을 완전히 섬멸하였습니다.

2차 당항포 해전(1594.4.23~24)은 왜선 31척(대선 10척, 중선 14척, 소선 7척)이 거제에서 출발, 그중 21척은 고성(당항포로) 7척은 진해의 오리량으로 그리고 3척은 저도(당항만 입구 맞은편에 있는 섬)로 갔다는 첩보를 받고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여 치른 해전입니다. 4월 23일 이순신 장군은 이억기, 원균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영등포와 장문포 앞 바다에서부터 학익진을 펴 바다를 가로막아 왜선 10척을 격파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4월 24일 새벽 이순신 장군과 이억기 장군은 바다 한가운데 진을 쳐 밖에서 들어올 왜적에 대비하고 어영담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당항만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 왜선 21척을 불태워 승리하였습니다.

## 탐방 1 당항포 전적지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목  | 당항포 해전에 대해 알아보시다. |    |   |   |      |
| 일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 준비물 | 카메라, 필기구 등        |    |   |   |      |



당항포 전적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 충무공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 충무공 이순신의 위국정신을 후세에 선양하고자 1986년에 건립한 높이 20m의 기념탑입니다.



- 왜적을 무찔렀던 고성지역 의병 44인의 호국의 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세워진 탑으로 높이는 11.2m입니다.



1, 2차 당항포 해전 승리의 전략을 적어봅시다.

1차

2차

## 2

## 바다가 만들어낸 보석이 있는 수석전시관

무엇을  
배울까요?

- 수석의 생성과정을 알아봅시다.
- 수석을 감상하고 그 특징을 살펴봅시다.

|                      |  |
|----------------------|--|
| <b>자원탐방<br/>길라잡이</b> |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내 위치하고 있는 수석전시관에 가보면 상설전시관, 고성토중석전시관, 기획전시관, 야외전시물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수석의 생성과정과 종류 및 수석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
| <b>위치</b>            |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당항포관광지(수석전시관)   |
| <b>관람시간</b>          | 연중(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 <b>입장안내</b>          |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 어린이(4,000원), 청소년(5,000원)  |
| <b>연락처</b>           | 055) 670-4501  |
| <b>교통편</b>           | 고성시외버스터미널 :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당항포관광지까지 도보 또는 택시 이용  |
| <b>참고사이트</b>         | 당항포 관광지 ( <a href="http://dhp.goseong.go.kr">http://dhp.goseong.go.kr</a> )  |
| <b>탐방시유의사항</b>       | 관람예절 준수(함부로 작품을 만지지 않기)  |

## 위치 안내도



## 탐방지 모습



## Tip!

• 야외 수석 전시물을 함께 보면 다양한 수석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석 전시관



야외 전시관

### 자연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 여러 모양의 작은 돌, 수석(壽石)

#### 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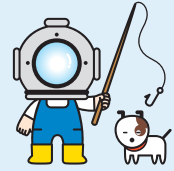


수석이란 풍화나 침식 등 자연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 여러 모양의 작은 돌로서 두 손으로 들 수 있을만한 크기의 돌에 자연의 모습이 축소되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석은 바다의 거센 파도로

깊이 문힌 지질층의 암맥이 해안가에 노출된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암맥이 깨지고 닳아지는 가운데 기묘한 모양의 수석으로 변합니다. 수석이 될만한 돌은 균열이 가지 않은 견고한 것이면서 굴곡의 변화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따라서 돌이 이런 모양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해안의 입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온 지역은 거센 물살의 힘을 더 세게 받아서 암석이 빨리 파괴되고 모난 돌조각이 많아 쓸만한 수석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육지가 항구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만의 입구는 파도의 힘을 덜 받아서 약한 물결로 닳고 닳아 멋진 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석전시관에는 상설전시관, 고성토중석전시관, 기획전시관, 야외 전시물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3점의 수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산수경석, 산형석, 폭포석 등 다양한 수석이 전시되어 수석의 아름다움과 멋을 직접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 탐방 2 수석전시관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목  | 수석에 대해 알아보시다. |    |   |   |      |
| 일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 준비물 | 카메라, 필기구 등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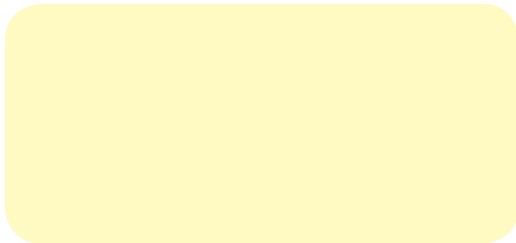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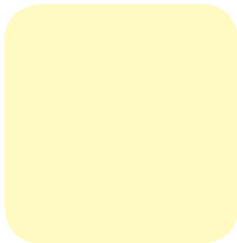


수석은 주로 바다, 산, 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석전시관을 둘러보고 바다, 산, 강에서 나오는 수석은 각각 어떻게 생성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

| 구분 | 수석의 생성과정 | 특징 |
|----|----------|----|
| 바다 |          |    |
| 산  |          |    |
| 강  |          |    |



고성 토중석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그 특징을 조사하여 봅시다.



## 3

## 소가야의 타임캡슐, 송학동 고분군

무엇을  
배울까요?

- 해상왕국이라고 불린 소가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봅시다.
- 고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자원탐방  
길라잡이

고성읍 북쪽에 있는 작은 구릉인 무기산 일대에는 소가야 왕들의 무덤인 고분이 남아있습니다. 도심에 가까이 있는 고분군으로 고성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          |  |
|----------|--|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
| 관람 시간    | 연중 가능  |
| 입장 안내    | 입장료 없음   |
| 연락처      | 055) 670-2221  |
| 교통편      |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0분   |
|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 |
| 탐방시 유의사항 | 봉분에 함부로 올라가거나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

## 위치 안내도



## 탐방지 모습



Tip!

- 고성지역에서 융성했던 소가야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찾아갑시다.
- 고성박물관이 가까우니 함께 방문해보세요.

송학동 고분군

해상왕국 소가야의 타임캡슐이 열린다.

고분군이 자리한 고성군은 소가야의 옛터로 알려져 있지만, '작은 가야'가 가야인들이 스스로 불렀던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철이 많이 나던 '쇠가야'가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수많은 고인돌 집단은 시간이 흘러 삼한시대에 이르면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자미동국' 또는 '고자국'이라고 역사서에 기록된 나라입니다. 고자국은 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과 교류하며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소가야'가 됩니다.

소가야는 5세기 중반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 등 고성의 큰 고분군들은 소가야 왕들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학동 고분군에서 바라본 당항포만



내산리 고분군과 당항포만







해상왕국 가야의 모습



굽다리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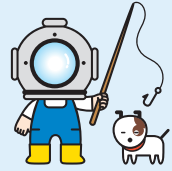
가야시대의 교역로

고분에서는 고성지역의 유물을 비롯하여 백제·신라·왜의 유물들이 모두 발견되어 동북아시아 해양무대에서 활약한 소가야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송학동 1호분에서는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덤방을 붉게 칠한 채색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당시 일본 규슈 북부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채색고분의 주인공이 일본에서 소가야의 왕실로 시집온 공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고분은 봉분을 쌓은 후 분구를 다시 파서 무덤을 설치하고 다시 봉분을 쌓는 분구묘인데, 이런 분구묘는 전라남도 지역과 일본 규슈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영남지역에서는 고성에서 유일하게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야는 이들 두 지역과 지리적으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백제 및 마한과 왜와의 교류에서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의 문화가 소가야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고성지역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고성의 소가야는 6세기경 백제와 신라의 남부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점차 쇠퇴하게 되고 경북지역의 대가야가 멸망할 무렵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라는 고성에 고자군을 설치하였으며, 고성은 대 일본 외교의 창구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탐방 3 송학동 고분군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목  | 소가야 사람들이 고성지역에 살았던 이유 |    |   |   |      |
| 일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 준비물 | 카메라, 필기구, 지도 등        |    |   |   |      |



아래에 송학동 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의 위치를 보고 해상왕국 가야 사람들은 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는지 생각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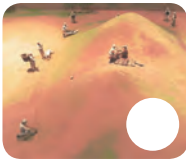
---



---



고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세요.



봉분 다시 쌓기



땅 다지기



무덤 설치하기



구간별로 쌓기



분구묘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고성지역에 분구묘가 만들어 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 4

## 청동기의 흔적, ‘학림리 지석묘’

무엇을  
배울까요?

- 지석묘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 학림리 지석묘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              |   |
|--------------|---|
| 자원탐방<br>길라잡이 | 지석묘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청동기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돌멘 또는 고인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학림리 지석묘는 해안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오방리 지석묘나 석지리 지석묘와 함께 남해안 일대의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
| 관람시간         | 연중 가능   |
| 입장안내         | 입장료 없음  |
| 연락처          | 055) 670-5101(하일면사무소)   |
| 교통편          | 시외공용버스주차장-군내버스(하일면)-도보  |
| 참고사이트        | 문화재청 (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  |
| 탐방시유의사항      | 경작지 훼손 금지, 쓰레기 회수   |

## 위치 안내도



## 탐방지 모습



Tip

- 미리 지석묘(고인돌)에 대해 알아본 후 탐방해 보세요.
- 지석묘가 있는 곳 주변의 자연환경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북방식 고인돌(강화도 부근리)

### ■ 옛날 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번에 찾아갈 곳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유적지 중 한 곳입니다. 고인돌은 다른 말로는 ‘돌멘’ 또는 지석묘(支石墓)라고 합니다. 고인돌은 사람들의 역사가 생기기 전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중국, 한반도, 일본 등지에서 발견되며, 그 중 절반 이상인 4만여 기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고인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진과 같이 거대한 바위가 세워져있는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이 사진은 강화 부근리 지석묘입니다. 거대한 식탁처럼 생겼지요? 한반도의 북쪽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쪽 지방에서는 어떤 모습의 고인돌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탐방하고 있는 고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성지역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약 66개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 고인돌 분포도



**Tip** • 실제 지형도와 비교해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는 곳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고성에 살았던 우두머리(족장)의 무덤입니다. 어떤 곳에 고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고성지역은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고성반도에는 학림리, 오방리, 석지리 등 해안가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동마을 이정표



학동마을 돌담길



학동마을 돌담

학동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예요. 자세히 보면 고인들의 모양을 본 따 만들어 놓은 것 같군요. 학동마을의 돌담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작한 돌과 황토로 담을 쌓은 게 특징이에요.

돌담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한 고성 학동마을 인근에 위치한 학림리에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학림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돌이 고인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판의 모습을 떠올리면 고인돌을 마주보는 순간 ‘와~ 이게 고인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남방식 고인돌은 바둑판처럼 생겼습니다.

이곳 학림리 마을 앞에 위치한 제법 넓은 들판에는 학림천이 흐르고 있고 남북으로 여러 개의 고인돌이 열을 지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본래 8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6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래에는 낮은 받침돌이 괴여 있고, 위에는 2m 내외의 평평한 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고인돌은 큰 뚜껑

돌 밑에 시체를 안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갈아서 만든 돌칼, 돌화살촉이 있었답니다. 아마 이 지역은 삼한시대에 해상 무역이 활발하였던 사천 늑도 유적지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선사시대부터 해상 무역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1기

마을 입구 오래된 고목과 함께 마을을 지키듯이 묵묵하게 앉아 있는 고인돌. 상당히 거대한 크기로 당시 우두머리의 권력이 대단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인돌 2,3,4기

농경지 한 가운데 남아 있는 고인돌. 내부에 무덤이 있어서 지석묘라고 불립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고인돌 5기

마을 앞에 펼쳐진 경작지 가운데 남아 있는 고인돌. 꼭 바둑판처럼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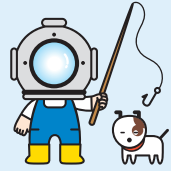
고인돌 6기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고인돌

현재 학림리에는 6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고인돌들을 칠성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7개의 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겼나 봅니다.

**Tip!** • 6기의 남아 있는 고인돌을 모두 찾아보고, 주변의 넓은 들판과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했을 청동기 시대의 옛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탐방 4 학림리 지식묘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목  | 찾았다, 학림리 지식묘!   |    |   |   |     |
| 일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준비물 | 카메라, 색연필, 필기구 등 |    |   |   |     |



내가 찾은 학림리 고인들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고성지역에는 왜 고인들이 많이 발견될까요? 선사시대 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하여 고인들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 5

## 바다에서 놀아보자, 동화어촌체험마을

무엇을  
배울까요?

- 어촌체험마을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어로·채집 활동을 경험해봅니다.

자원탐방  
길라잡이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접하고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개막이, 햇불체험 등 다양한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         |  |
|---------|--|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88-20   |
| 관람 시간   | 09:00 ~ 17:00 (연중, 사전 문의 필수)   |
| 입장 안내   | 체험 프로그램별 5,000~20,000원   |
| 연락처     | 055) 673-8054  |
| 교통편     | 군내버스(부포.하일.가룡.부포)-동화마을 정류장 하차  |
| 참고 사이트  | 바다여행 ( <a href="http://vill.seantour.com">http://vill.seantour.com</a> ) |
| 탐방시유의사항 | 갯벌을 함부로 밟거나 마구잡이로 채집하지 않습니다.   |

## 위치 안내도



## 탐방지 모습



Tip!

- 물때를 확인하고 찾아가십시오.
-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갯벌체험

### 생기 넘치는 여촌 체험이 가능한 동화어촌체험마을

동화리를 솔복개(松浦)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부터 수군의 통제구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아름드리 노송이 바닷가를 뒤덮을 정도로 우거져 있어 ‘솔복개’, 송포동(松浦洞)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 ■ 개막이 체험(여름)

개막이는 해안변의 오목한 곳에 소나무 말목이나 대나무를 박고 그물을 설치하여 밀물 때 그물을 들어 올렸다가 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그물을 내려 가두어 잡는 방법입니다.

#### ㉠ 햇불 체험(봄)

햇불 체험은 야간에 햇불을 밝혀 불빛을 따라 해안가에 나온, 봄철에는 낙지, 여름철에는 대하(오도리), 가을에는 벌떡게 등을 채집하는 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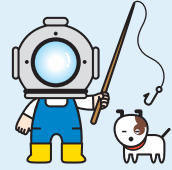
갯벌에서 하는 체험이므로 물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물이 빠지는 밤 시간에 가능합니다.

#### ㉡ 갯벌(바지락) 체험, 고동잡기 체험, 썩잡기 체험(연중, 봄)

갯벌 체험장은 갯벌에 사는 생물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썩 잡기, 바지락 캐기 등을 직접 해보면서 체험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 탐방 5 동화어촌체험마을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 목   | 갯벌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   |   |      |
| 일 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 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 준 비 물 | 카메라, 필기구, 채집통, 장화, 호미, 바구니, 장갑 등 |    |   |   |      |



어촌체험마을을 찾아가 여러 바다 생물을 찾아봅시다. 갯벌 바닥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갯벌의 역할과 갯벌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바다일보

20△△년 △△월 △△일

●●●기자

### 무분별 체험활동, 갯벌은 아파요.

무분별한 갯벌체험 행사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17일 발표한 '갯벌체험 행사가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갯벌체험 행사 후 대형 저서생물이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자연생태학 습장으로 연중 개방되는 '상시행사 갯벌'은 1mm 이하의 갯지렁이 서식 밀도가 행사 이전의 28~35%에 불과했다. '일시행사 갯벌'은 1mm 이상 대형 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물량이 20~25% 감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훼손이 심한 곳의 갯지렁이 개체 수는 인근 갯벌의 12%에 불과했다. 극기 훈련장 등으로 이용되는 '복합행사 갯벌'은 대형저서동물이 인근 갯벌의 38%에 불과했고, 갯지렁이 개체 수는 53% 수준이었다. 외국에는 갯벌 체험장 출입 허용기간과 개인이 채취하는 패류의 무게와 크기를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에는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6

## 기암절벽과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상족암

무엇을  
배울까요?

- 해안지역의 공룡 발자국 화석의 생성 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공룡의 종류, 크기, 특징 등을 비교하여 봅시다.

자원탐방  
길라잡이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상족암군립공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발달하였던 경상분지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상누층군 중 진주층(진동층)에 해당되며, 지층의 두께는 약 150m로, 약 200여 층에서 2000여 개의 공룡 발자국과 25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행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  |
|---------|--|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2  |
| 관람 시간   | 연중(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 입장안내    | 입장료 없음   |
| 연락처     | 055) 670-4461  |
| 교통편     | 시내버스 10번   |
| 참고사이트   | 고성군청 ( <a href="http://visit.goseong.go.kr/02best/01.asp0">http://visit.goseong.go.kr/02best/01.asp0</a> ) |
| 탐방시유의사항 | 바다와 인접한 기암절벽 탐방 시 추락사고 주의  |

## 위치 안내도



## 탐방지 모습



Tip!

- 회화면 어신리 발자국 화석지, 동해면 봉암리 발자국 화석지, 동해면 장좌리 발자국 화석지를 비교하여 봅시다.

해식동굴

상족암

### 남해안 한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족암군립공원

하이먼 덕명리, 월흥리에 위치한 상족암군립공원은 남해안 한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해면의 넓은 암반과 기암절벽이 계곡을 형성한 독특한 지형을 보입니다. 이곳은 바위가 밥상다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고 쌍족

(雙足) 또는 쌍발이라고도 합니다. 상족암 부근 해안에는 6km에 걸쳐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데 지난 1982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다리와 네 다리로 걸었던 공룡 등 여러 종류의 공룡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천연기념물 제411호인 고성 덕명리는 중생대 백악기 고생물 화석 산출지로서 공룡 발자국 화석과 새 발자국 화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해안을 따라 약 41km에 걸쳐 1,900여 족 이상 되는 공룡 발자국은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등으로 다양하고, 미국 콜로라도, 아르헨티나 서부해안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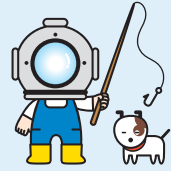


공룡발자국 화석지



병풍바위

탐방 6 상족암 군립공원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 목   | 발자국화석에 대해 알아보시다. |    |   |   |      |
| 일 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 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 준 비 물 | 카메라, 필기구 등       |    |   |   |      |



상족암군립공원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 지는 순서를 바르게 적어봅시다.



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굳어진다.



나. 공룡이 바닥에 발자국을 남긴다.



다. 침식작용을 통해 발자국이 지표면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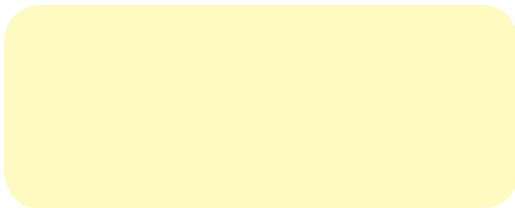


라. 발자국 위에 퇴적물이 쌓인다.

(                    →                    →                    →                    )



공룡발자국화석을 탁본하여 붙이고, 그 특징을 적어봅시다.



## 7

## 중생대 공룡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성공룡박물관

무엇을  
배울까요?

- 공룡의 골격과 화석을 통해 공룡의 특징을 알아보시다.
- 공룡의 종류를 알아보시다.

자원탐방  
길라잡이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공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전문 박물관입니다. 실물 크기의 공룡 골격 화석과 부분 골격 화석, 공룡의 계통도 등 공룡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           |   |
|-----------|---|
|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
| 관 랐 시 간   | 연중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 입 장 안 내   | 어린이(1,500원), 청소년(2,000원)  |
| 연 락 처     | 055) 670-4451   |
| 교 통 편     | 시내버스 10번  |
| 참 고 사 이 트 | 고성공룡박물관 ( <a href="http://museum.goseong.go.kr">http://museum.goseong.go.kr</a> ) |
| 탐방시유의사항   | 관람코스별 탐방이 가능함   |

## 위치 안내도



## 탐방지 모습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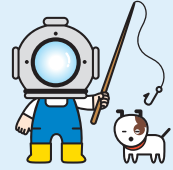
- 석고공룡만들기, 공룡탄본찍기, 공룡비누만들기, 공룡찰흙찍기, 암모나이트 화석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해봅시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전문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전문 박물관입니다. 공룡 골격과 공룡 발자국 화석 등 공룡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억 3000만 년 전 중생대 초, 지구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공룡. 그로부터 약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공룡은 백악기가 끝남과 동시에 멸종하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공룡을 볼 수 없지만 지층 속에서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공룡은 화석이 되어 다시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성군은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으로 이 박물관에는 오비 랩터와 프로토케라톱스 진품 화석을 비롯하여 클라멜리사우루스 모놀로포사우루스 같은 아시아 공룡,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공룡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탐방 7** 고성공룡박물관


# 탐방지에서 알아보아요

|     |                   |    |   |   |      |
|-----|-------------------|----|---|---|------|
| 제목  | 중생대 공룡에 대해 알아보시다. |    |   |   |      |
| 일시  | 20                | 년  | 월 | 일 | 요일   |
| 학반  | 학교                | 학년 | 반 | 번 | 이름 : |
| 준비물 | 카메라, 필기구 등        |    |   |   |      |



고성공룡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공룡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되는 공룡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채워 넣어 봅시다.

**벨로시랩터**  
(갈고리모양의 날카로운 앞발가락)

**안킬로사우르스**  
(목직한 꼬리곤봉)

**투오지앙고사우르스**  
(뾰족한 꼬리뼈)

**이구아노돈**  
(뾰족한 엄지발톱이 달린 앞발)

**슈노사우르스**  
(용각류 공룡중 유일하게 꼬리곤봉이 있음)

**파키케팔로사우르스**  
(대머리 공룡으로 두꺼운 머리뼈가 특징)



고성공룡박물관을 탐방한 소감을 오행시로 나타내봅시다.

공:  
룡:  
박:  
물:  
관:





읽을 거리 |

## 당항포대첩축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선 조국을 굳건히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민 정신과 이름 모를 조선 수군들의 투혼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당항포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매년 7월 말에 개최되며 당항포해전 재현과 고성 오광대, 농요, 승전무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당항포대첩축제



## 읽을 거리 2

# 공룡나라축제

세계 최대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산출지인 경남 고성에서 개최되는 공룡을 테마로 한 축제입니다. 1억 6천만년 전 이 땅에 생존했던 공룡의 자취를 느끼고 공룡과 문화 예술의 만남을 통하여 어린이 환경 과학교육 및 지역문화예술을 연계한 축제입니다. ‘고성공룡나라축제’는 2010년부터 시작돼 3년마다 열리는 ‘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대체 축제로 열립니다. 당항포대첩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됩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야외

### 읽을 거리 3

## 아이쿠 속았네! ‘속시개’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쯤 전에, 지금 고성읍에는, ‘무기정’이라는 주막이 하나 있었고, 그 집에는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미 수년 전, 부모와 동생을 왜구에 잃은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손님을 맞았는데, 그의 말투며 행색이 아무래도 수상하여, 이를 눈치 챈 ‘월이’가, 그를 술에 굶아떨어지게 해 놓고는, 몰래 그의 배낭을 열었더니, 그 속에는 많은 문서들과 함께 고성의 길과 바다의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었지만, 그는 임진왜란을 앞두고 조선을 정탐하러 온 일본의 첩자로, 조선 정탐을 거의 끝내고 막 일본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월이는 그 손님이 며칠 머무는 동안에, 그 지도 속의 바닷길 몇 군데를 고치고는 도로 바랑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정해룡 시인의 역사소설,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

이듬해, 왜적들이 때를 지어 우리 남해안으로 쳐들어 왔는데, 고성으로 온 한 무리의 왜적들은 그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작전을 펼쳤다가, 당시 당항만 길목을 지키고 있던, 우리의 조선 수군에 걸려,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당항만’의 입구는 좁고 중간은 조금 넓어졌다가, 다시 얼마 못 가서 그 바다는 완전히 끝이 나고, 다시 물이 10리 정도 이어지다가 ‘고성만’이 나오는데, 저 ‘월이’ 아가씨는 그 막힌 육지를 틈워, 마치 ‘당항만이 바로 고성만과 연결된 것처럼’ 지도를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문을 모르는 왜적들은 함대를 이끌고 당항만을 통해 고성만으로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이곳 지리에 밝은 조선 수군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왜적을 내몰았습니다. 놀란 왜적은 육지로 도망치거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날 전투 이후 왜적은 조선 수군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 했습니다. 당시 이 전투를 경험하거나,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그 때의 지명들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전해옵니다.

‘속시개’는 ‘월이’가 고쳐 그린 지도에 ‘왜적들이 속았다는 거류면쪽 바다’의 이름이며, ‘도망개’는 잘못된 지도에 당황하던 ‘왜적들이 도망치던 거류와 동해 쪽의 바다’ 이름입니다. ‘머릿개’(頭浦 = 두포, 오늘날의 ‘두호’)는 ‘잘려나간 왜적의 머리(頭)가 떼 지어, 물결에 떠밀려왔다는 마암면 바다’ 이름이고, ‘핏골’은 ‘아군에 붙들린 왜병들이 피를 쏟은 당항리 동쪽 골짜기’를, ‘잡안개(자부랑개)’는 ‘잡은 개’가 변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투와는 직접 관계는 없으나, 배둔리 앞의 들판 이름이 ‘마구들’인데, 이는 왜적의 내침에 대비하여 ‘서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느라, 주민들로 하여금 아무나 거두게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옵니다.



비매품



9 788993 511314  
ISBN 978-89-93511-31-4  
ISBN 978-89-93511-32-1 (세트)

## ◆ 도움주신 곳

지도출처 : 네이버 지도

고성공룡박물관  
고성박물관  
고성군청  
고성문화관광  
당항포관광지  
문화재청



<http://blog.naver.com/ramantic/220202863000>  
<http://blog.naver.com/jjg6666/20207472066>  
<http://blog.naver.com/soolimhan/80012507933>  
<http://blog.naver.com/pdu0601/10082820415>  
<http://younghwan12.tistory.com/3244>  
<http://blog.naver.com/dinogoseong/130110160278>

## 학생워크북 만든 사람들

### 집필위원

이민경(유영초등학교 교사)  
정성훈(충무초등학교 교사)

### 자문위원

문성배(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부교수)  
신춘희(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  
원호현(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교수)  
이영애(부산해양교육연구회 회장)  
최성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학장)

##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II

부산·경남 지역 해양문화자원지도

초 판 1쇄 찍은날 2015년 1월 28일

초 판 1쇄 펴낸날 2015년 1월 28일

펴낸곳 한국해양재단

펴낸이 이부식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6층

전 화 02-741-5278

팩 스 02-3673-3312

홈페이지

[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http://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

편집·출판 (주)명진문화

ISBN 978-89-93511-31-4

ISBN 978-89-93511-32-1(세트)